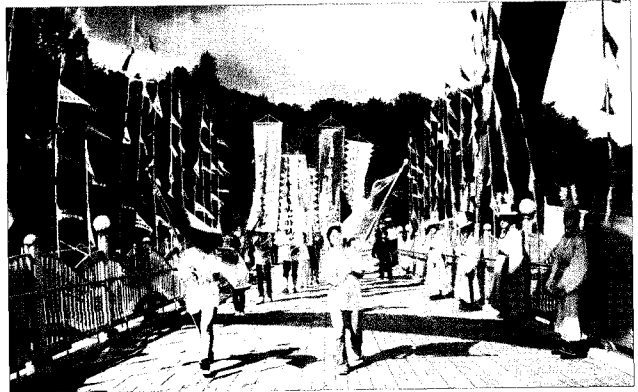




전시, 체험,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2010 '청주직지축제가'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공감'을 주제로 청주 흥덕사지와 청주예술의전당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제에는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깨고 보다 시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졌다. 개막행사부터 기존의 경직된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흥겨운 장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이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 졌다. 또한 시민들이 속해있는 동아리 등이 무대공연에 참여하는 등 축제 곳곳을 시민 참여로 가득 채웠다.



흥덕사지에서 시작된 개막행사 눈길

9월 3일 개막한 2010청주직지축제에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시민 화합마당으로 진행된 개막행사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흥덕사지에서 시작된 개막행사는 길놀이를 거쳐 풍물패가 예술의전당 광장에 다다르면서 절정을 이뤘다. 비보이와 상모꾼의



배틀, 타악기와 일렉기타 등 전통과 현대의 악기가 만나 한바탕 놀이마당을 펼쳤다. 이어 KBS합창단의 공연과 개막을 알리는 버튼터치로 축제의 개막을 알렸다.

이외에도 전시관, 체험행사장 등도 일제히 문을 열고 나흘간의 축제가 시작됐다. 직지세계문자서예문자서예대전, 충북e스포츠키움대회, 청주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 순천박씨 소장 유물전, 녹색수도 청주농업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시작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직지축제엔 역시 고인쇄문화체험

고인쇄문화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이 직접 시연하는 금속활자 체험,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한지장과 배첩장이 시연하고 체험하는 한지 체험과 배첩체험 등 전통방식으로 책을 만들던 방법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1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홍보부스에서는 목판 인경체험을 준비해 금속활자와 목판활자를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고인쇄문화 체험하러는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직지! 바로알기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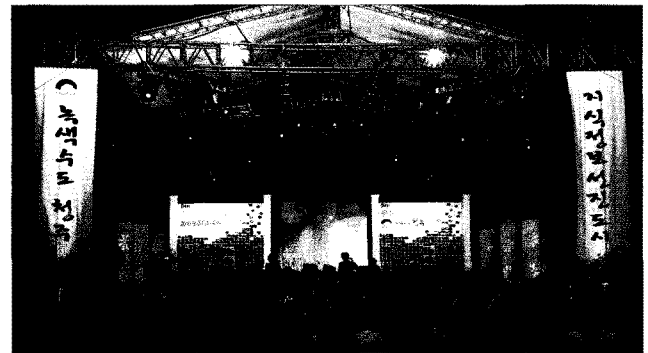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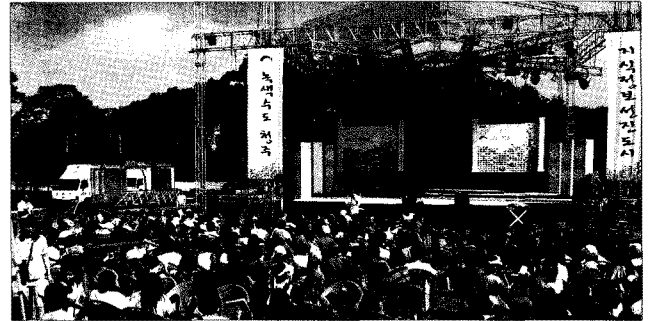
직지와 고려시대에 대한 O·X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직지! 바로알기’ 코너가 인기였는데,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어린이 학습만화 ‘문화유산 탐험대’ 등 다양한 선물도 증정해 관람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직지와 고려시대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참가한 관람객은 직지에 대한 내용을 O·X퀴즈로 풀어보니 직지에 대한 이해도 쉽게 가고 재미있다고 참여 소감 밝혔다.

단체 관람객 줄이어

직지축제에서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단체 관람객 발길 이어졌는데, 용암초, 흥덕초, 직지초 등 시내 주요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생들이 행사장을 찾아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사장을 관람했다. 단체관람을 온 학생들에게는 현장체험 학습지를 무료로 나눠주고 행사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체험과 전시장 관람 등을 통한 현장학습이 진행됐다.

오늘은 내가 고려인!

고려시대 의상을 입고 한방 찰칵!은 40여벌의 고려시대 의상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고려시대로의 시간여행을 안내했다. 관람객들은 왕, 신하, 귀족 등의 의상을 입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는데,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 옷을 입은 관람객들은 캐논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촬영 서비스에서 사진도 찍는 등 즐거운 시간 보냈다.



야간 공연 인기 만점

행사기간 중 야간에 진행된 공연이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개막일인 3일에는 충청필하모니의 오케스트라의 ‘가을밤의 음악풍경’ 공연이 펼쳐졌는데, 이날 공연에서는 오페라리아, 바이올린 협연, 영화 음악 등이 연주되어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또, 4일에는 유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꿈나무’ 공연이 펼쳐져 마린바와 MBC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와 테너의 협연으로 신명나는 무대를 펼쳐 서늘한 초가을의 바람에 낮 동안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무료로 진행된 나무놀이체험, 평생학습관의 염색 체험과 부채 만들기 체험, (주)하이닉스반도체의 좋은 기억 조형물 만들기 체험도 무료로 진행되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직지축제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무료체험이 많고 공연도 볼 수 있어 아이와 함께 즐기기에 좋았다”며 “다음 축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관람소감을 밝혔다.

직지축제 관계자는 “더운 날씨와 폭우에도 행사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신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축제에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10청주직지축제는 전시, 공연, 체험, 참여, 연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